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          |       |
|----------|-------|
| 의안<br>번호 | 14655 |
|----------|-------|

발의연월일 : 2015. 4. 9.

발 의 자 : 이원욱 · 김경협 · 이개호  
한정애 · 민홍철 · 홍익표  
김기준 · 심재권 · 조정식  
부좌현 · 노응래 · 이재오  
유성엽 · 도종환 · 최민희  
강동원 · 안민석 · 임내현  
이미경 · 배재정 · 김윤덕  
김상희 · 강창일 · 한명숙  
최규성 · 박광온 · 홍종학  
이종걸 · 주승용 · 전정희  
박홍근 · 오영식 · 박지원  
노영민 · 정세균 · 박성호  
백재현 · 최재성 · 이우현  
정청래 · 신정훈 · 이해찬  
서영교 · 김민기 · 강기정  
박완주 · 진선미 · 이목희  
정호준 · 설 훈 · 이석현  
박기춘 의원(52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를 신청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군(群): 규슈·야마구치 및

인근지역' 28곳 중 11곳이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인 것에 대해 이는 세계 평화를 교란하고 위협하는 것이며, 전쟁의 산물을 산업혁명의 유산으로 미화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는 인류보편적 유산의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자국의 산업발전 홍보를 위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상흔이 자리한 시설을 문화유산으로 삼아 우리 국민의 고통을 증폭시키고 있는 일본을 규탄하고,

지금은 자국의 산업혁명의 유산을 홍보하고 기리는 일보다는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배상과 책임을 다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일보를 통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노력을 다해야 할 아베 정부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올해 1월 일본 정부가 조선인 징용시설 11곳을 포함한 28곳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신청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설 중 7개 시설에서 총 57,900명의 우리 국민이 강제 동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자국의 침입으로 이루어진

아픈 역사를 산업혁명으로 미화해 고통 속에 희생된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통해 자국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것에 대해 단호한 의지로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국민의 공분을 담은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일본이 다시는 과거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 제안이유

일본 아베 정부가 올 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11곳의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이 포함된 메이지시대 산업혁명 유산 28곳을 신청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은 크나큰 공분을 느끼고 있으며, 동아시아 주변국들에게 심각한 외교적인 파장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참략전쟁을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미화해 세계유산협약의 가치도 위배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지난 외교를 부정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임.

이에 동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자국의 산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의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무엇보다 진정성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 일본 정부의 도발 행위를 무력화하고,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수호에 대한 의지를 알릴 것을 촉구하는 것임.